

(I)

불법(佛法) 기초교학

- 신행학
- 십계(十界)
- 속명전환
- 삼장사마
- 남묘호렌계교
- 어본존
- 공덕

불법(佛法)기초교학

신행학(信行學)

“행학(行學)의 이도(二道)를 힘쓸지이다. 행학(行學)이 끊어지면 불법(佛法)은 없느니라. 나도 행(行)하고 남도 교화(教化)하시라. 행학(行學)은 신심(信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一文一句)라도 설(說)할지니라.”(어서 “제법실상초”, 어서 1361쪽)

“Exert yourself in the two ways of practice and study. Without practice and study, there can be no Buddhism. You must not only persevere yourself; you must also teach others. Both practice and study arise from faith. Teach others to the best of your ability, even if it is only a single sentence or phrase.” - (“The True Aspect of All Phenomena”, The Writings of Nichiren Daishonin, vol. 1, p. 386)

다고 가르쳤다.

2대 창가 학회 도다 조세이 회장은 ‘신(信), 행(行), 학(學)’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학(學)을 통해 얻은 이해는 신(信)을 갖게 하고 신(信)은 이해를 구하며, 구한 이해는 신(信)을 더욱 깊게 한다. 이렇게 깊어진 신(信)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行)의 이해를 깊게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기본중 ‘행(行)’은 ‘자행(自行)’과 ‘화타(化他)’로 구성된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덕을 얻도록 개인적인 수행으로 남묘호런 계교를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학(學)’은 니치렌의 어서를 근본으로 불법(佛法)의 원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행학(行學)이 끊어지면 불법(佛法)은 없느니라”라는 길로 아무리 현명하고 고귀하게 보이고, 불교의 절이나 건물들이 근사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불교의 수행과 교학에 힘쓰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장식이 되어버리며 진실한 불법(佛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도 행(行)하고 남도 교화(教化)하시라”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간파한 채 자신의 공덕만을 위한 불법(佛法) 수행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 부처의 기본적인 소원인 모든 사람이 괴로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부처의 마음과 의도와는 반대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동서양의 몇몇 종교는 주로 신심에 강조를 둔다. 반면 다른 종교는 수행이나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강하게 강조한다. 몇몇 종교는 배우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한 구도는 종교 전문가나 성직자에게 맡기고 못하게 한다. 니치렌 불법(佛法)은 모든 사람이 ‘신(信), 행(行), 학(學)’의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도록 격려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사도 섬의 이치노 사외에서 유배 중 1273년 5월 17일에 위에 실린 구절이 담긴 “제법실상초”를 쓰셨다. 그는 그때 52세였다. 사이렌보 니치조에게 쓴 어서로, 법화경 “방편품”내의 “제법실상”의 의미에 대해 사이렌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서(答書)이다.

‘신(信), 행(行), 학(學)’에 관해서,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에 대한 강한 ‘신(信)’을 바탕으로 ‘행(行)’, ‘학(學)’의 두 부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

니치렌 대성인은 “행학(行學)은 신심(新心)에서 일어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진실한 불교의 신심은 가르침의 이해를 깊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법(佛法)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법(佛法)에 관해 배우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단순히 불법(佛法)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니치렌 대성인은 “힘이 있는 한 일문일구(一文一畝)라도 설(設) 할지니라”라고 계속하셨다. 불법(佛法)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일지라도, 우리가 불법(佛法)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수행은 니치렌 대성인과 같은 마음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남묘호런계교 창제를 통해 깨어난 묘법(妙法)의 공덕의 힘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활동하게 된다.

SGI 이케다 회장은 “신심은 경(經)을 단순히 읽는 데 있지 않다. 지도를 하는데 유창하거나 기술이 좋은 데 있지 않다. 진실한 불교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니치렌 대성인-광선유포를 위해 계속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가르친 대로 ‘신(信), 행(行), 학(學)’의 길을 추구한다. 그러한 행위야말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佛法)의 정수이다.”라고 쓰셨다 (2001년 2월 9일자 월드 트리뷴, 4쪽).

“신(信), 행(行), 학(學)’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벗어나기는 아주 쉽다. 처음에는 약간의 자유를 즐기는 것 같지만 종종 자기민족과 이기적으로 되게 만든다. 결국에는 법(法)의 리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불법(佛法)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SGI의 훌륭한 단체가 있는 이유가 있다. 성장, 행복, 광선유포 발전의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GI는 법화경(法華經)에서 가르친 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불교 단체이다. 같은 SGI 회원과 니치렌 대성인 불법(佛法)을 넓히고자 함께 일하면서, 우리자신을 발전시키고 닦아가면서 이 현세에서 확실하게 성불할 것이다. ■

(출처: WT, 12/19/08, 7p)



십계(十界)와 십계호구

① 십계

‘십계(十界)’란 생명의 경애를 10종류로 분류한 것으로, 불법 생명관의 기본입니다.

십계의 법리를 배움으로써 생명 경애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각자가 제각기 경애를 변혁해 가는 지침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란 지옥계(地獄界),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 수라계(修羅界), 인계(人界), 천계(天界), 성문계(聲聞界), 연각계(緣覺界), 보살계(菩薩界), 불계(佛界)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을 합하여 ‘육도(六道)’, 성문, 연각, 보살, 불을 합하여 ‘사성(四聖)’이라고 합니다. ‘육도’는 인도에서 발생한 비리문교 이래의 세계관을 불교가 채택한 것으로, 원래는 생명이 유전(流轉, 윤회)하는 세계를 크게 여섯으로 나눈 것입니다. 또 ‘사성’은 불도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입니다.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서는, 땅밑의 지옥이나 멀리 떨어진 정토(淨土)처럼 십계를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10종류의 세계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하나의 생명에 십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밝힘으로써 십계가 고정적인 세계가 아닌 생명의 경애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대저(大抵) 지옥과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 혹은 서방(西方) 등이라 하는 경도 있소이다. 그러나 자세히 찾아보면 우리들의 오 척(五尺)의 몸 안에 있다고 쓰여 있나이다 (어서 149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계나 불계라고 해도, 땅밑이나 서방 극락 세계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도 자신의 생명 속에 있다고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에 십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지옥의 괴로운 생명이라 해도 불계라는 대환희의 생명으로 변혁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화경에 입각한 십계론은 자신의 생명을 변혁해 가는 원리로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생명에 갖추어진 육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성인은 <관심의 본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타면(他面)을 보건대,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노하며, 어느 때는 평온하고 어느 때는 탐(貪)을 나타내며, 어느 때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어느 때는 참곡(諍曲)이나라. 노함은 지옥, 탐함은 아귀, 어리석음은 축생, 참곡함은 수라, 기뻐함은 천(天), 평온함은 인(人)이나라 (어서 241쪽)]. 이 글월에 기초하여 육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1. 지옥계

지옥은 원래 ‘지하 감옥’이라는 뜻으로 경전에는 팔열지옥(八熱地獄), 팔한지옥(八寒地獄) 등 수많은 지옥이 설해져 있습니다. 지옥계는 괴로움에 속박되어 있는 최저의 경애입니다. ‘지(地)’는 최저를 뜻하며 ‘옥(獄)’은 구속되어 얽매어 있는 부자유를 표현합니다. [지옥은 무서우니 불길을 가지고 집으로 삼는데 (<나이케에서> 어서

1439쪽)는 말씀처럼 자옥계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전체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세계라고 느끼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니치렌 대성인은 <관심의 본 존>에서 [노함은 자옥(어서 24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怒)함 이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나 괴로운 세계에 대한 풀 수 없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세계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신음 소리가 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 ‘무엇을 봐도 불행으로 느낀다는 경애가 자 옥계입니다.

또 파괴 충동에 사로잡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해 가는 것도 자옥계의 생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괴로움카운데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실로 자옥계의 생명이 표 출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2. 아귀계

아귀계(餓鬼界)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괴로운 경애입니다. 아귀의 원래 뜻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항상 굶주려 먹을 것을 원했던 것에 그칠 줄 모르는 격심 한 욕망의 불에 몸도 마음도 불타버리는 생명 상태를 아귀계라고 표현합니다.

대성인은 [아귀는 슬프나라 기갈(飢渴)로 굶주려 아이를 잡아먹고(이사 1439쪽), [탐함은 아귀(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것 즉 끝없는 욕망에 휘둘 러 그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경애를 뜻합니다.

물론 욕망 그 자체에는 선악(善惡)의 양면이 있습니다. 식욕 등 인간은 욕망이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욕망이 인간을 진보시키고 향상시키는 에너지 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창조로 사용되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괴로워하는 것이 아귀계입니다.

3. 축생계

축생(畜生)은 원래 새나 짐승 등의 동물을 말합니다. 대성인은 ‘어리석음은 축생 이라고 설하셨듯이 눈앞의 이해(利害)에 사로잡혀 이성이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생명에서 볼 수 있는 축생계의 특질입니다. 정사(正邪), 선악(善惡)의 판단이 서지 않고 본능 그대로 행동해 버리는 경애입니다. 또 대성인이 [축생의 마음은 약 함을 위협하고 강함을 두려워하느니라 (<사도아서> 어서 957쪽), [축생은 잔해(殘害)라 해서 서로 살륙한다 (<니아케아서>) 어서 1439쪽)고 말씀하셨듯이 이성이 나 양심을 잊어버리려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타인까지도 해롭게 하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으로 일관해 가는 경애입니다. 이른바 단지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타인 을 보살피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이든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생계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법이 동물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라고 맹도견처럼 사람을 구하는 일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예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라도 동물보다 진숙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생계라는 표현은 당시의 시대관념에 근거해서 인간으로 삶을 받았지만 인간다운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경애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옥계, 아귀계, 축생계의 셋은 어느 쪽도 고쳐야 할 경애이기 때문에 ‘삼악도(三惡道)’ 라고 합니다.

4. 수라계

수라(修羅)란 원래 ‘아수라’라고 하며 싸움을 좋아하는 인도의 신 이름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항상 타인에게 이기려고 하는 ‘승타(勝他)의 념(念)’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수라계의 특질입니다. 대성인은 수라계의 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천대 대사의 말을 인용하여 밝히셨습니다. [수라도(修羅道)란 항상 남에게 이기려 원하고 자신이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알아도 남이 뛰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을 낮추고 업신여긴다. 자기를 존중하는 모습은 마치 소리가 높고 날아 내려다 보는 것과 같다. 더욱이 겉으로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덕(德)을 갖춘 선인(善人)의 모습을 하고 있대(어서 430쪽, 취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뛰어나고 남이 열등하다고 여겨지면 만심을 일으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이 뛰어난 경우에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 말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 만날 때는 비굴하게 되어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성인을 [교만한 자는 반드시 강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니 예컨대 수라의 교만이 제석(帝釋)에게 공격 당하여 무열지(無熱地)의 연꽃 속에 소신(小身)이 되어 숨은 것과 같다(어서 957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허상을 만들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인격자나 선인을 가장하고 겸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면으로는 자신보 다 뛰어난 사람에 대한 시기와 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내면과 외면이 다르고 마음에 겉과 속이 있는 것도 수라계의 특질입니다.

따라서 대성인은 [참곡(諛曲)함은 수래(어서 241쪽)라고 설하셨습니다. ‘참곡이란 ‘아첨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말하며 ‘참도 ‘곡도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본심을 보이지 않고 거짓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라계는 탐진치의 번뇌나 본능에 휘둘리는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와 달리 자아의식(自我意識)이 강한 만큼 삼악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괴로움을 동반하는 불행한 경애이기 때문에 삼악도에 수라계를 덧붙여 ‘사악취(四惡趣)’라고 합니다.

5. 인계

인계(人界)는 온화하고 평정한 생명 상태이며 인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경애를 말합니다. 대성인은 [평온함은 인(人)이니라(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계의 특질은 사물의 선악을 판별하는 이성의 힘이 분명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畜)이라 하느니라(고)고 말씀 하셨습니다. 선악(善惡)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며 그 기준에 비추어 자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경애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다운 경애도 결코 노력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계는 십계에서 가장 가운데 있으며 위로도 아래로도 이동하기 쉬운 면이 있는 한편 계속 인 계로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연(惡緣)이 많은 세간이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향상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인계는 ‘자기에게 인간다운 경애의 제일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인계의 생명은 ‘성도정기(聖道正器)’라고 하듯이 불도(佛道)를 이루 는 성(成) 올바른 그릇(正器)입니다. 인계는 악연에 접하여 악도(惡道)에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 반면, 수행에 힘쓰면 사성(四聖)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지금 이미 얻기 어려운 인계에 생(生)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교를 건문했으니 금생을 그냥 넘긴다면 또 어느 세상에서 생사를 떠나 보리(菩提)를 증득(證得)하리오 (어서 49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얻기 어려운 인계의 생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의 행복을 얻기 위해 진지하게 신심 수행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6. 천계

천계(天界)의 천(天)이란 원래 천인(天人: 지상의 인간을 초월한 힘을 지닌 존재, 신을 말함)이 사는 세계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금세에서 선행을 한 자는 내세에 천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불법에서는 천계를 생명 경애의 하나로 하여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에 느끼는 기쁨의 경애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성인은 [기뻐함은 천(天) (어서 241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욕(睡眠慾)이나 식욕(食慾) 등의 본능적인 욕망, 새로운 차나 집을 갖고 싶다는 물질적인 욕망, 미래의 세계를 알고 싶거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싶다는 정신적인 욕망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각색의 욕망이 충족되어 기쁨에 빠져 있는 경지가 천계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희박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계는 지향해야 할 진실한 행복 경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옥계에서 천계까지의 육도는 결국 자기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는 천계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환경이 평온해질 때는 인계의 편안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조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옥계나 아귀계의 괴로운 경애로 전락하고 맙니다. 환경에 좌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육도의 경애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경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육도의 경애를 넘어 환경에 지배 당하지 않는 행복 경애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불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불도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가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사성(四聖)이라는 경애입니다.

7. 성문계·연각계

성문계(聖門界)와 연각계(緣覺界)의 둘은, 불교 중에서도 소승교의 수행으로 깨달은 경애로서 합하여 ‘이승(二乘)’이라고 부릅니다. 성문계란 본래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약간의 깨달음을 획득한 경애를 뜻합니다. 이에 비해 연각계는 여러 가지 사실과 현상을 연(緣)으로 하여 자신의 힘으로 약간의 깨달음을 얻은 경애입니다. 대성인은 [세간(世間)의 무상(無常)은 눈앞에 있으니 어찌 인계에 이승계(二乘界)가 없으리오 (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만물이 시간의 추이(推移)와 더불어 변화-생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과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세간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모두 시간과 함께 변화-생멸해 간다는 진리를 자각하여 그 무상(無常)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불변의 진리를 구해 가는 것이 이승의 경애입니다.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 만물이 무상의 존재라고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성인은 인계에 갖추어진 이승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승의 경애는 불교 중에서도 소승교가 이상(理想)으로 삼은 것으로 이승의 경애를 얻은 소승교의 성자(聖者)는 무상의 것에 집착하려는 번뇌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므로 번뇌를 없애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이 터득한 깨달음을 부처의 깨달음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한쪽 부분이며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실한 깨달음을 계속 해서 구하는 것이 원래의 이승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승은 그 낮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스승인 부처의 경애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낮은 깨달음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승은 오로지 자신들의 깨달음에 사로 잡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 하지 않는 에고이즘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회신멸지(灰身滅智)라고 해서 심신(心身)을 단멸(斷滅)하여 불성(佛性)을 고사(枯死)시키므로 이승의 중생은 권대승교에서 불성불(不成佛)의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부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8. 보살계

보살(菩薩)이란 부처의 깨달음을 터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승의 경우 부처를 스승으로 삼아도 자신들과 부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보살은 ‘사제불이(師弟不二: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니다)’의 정신으로 스승인 부처의 경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부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넓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살이라는 경애의 특징은 불계라고 최고 경애를 구해 가는 ‘구도(求道)’와 함께 스스로 불도 수행의 도상에서 터득한 이익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려는 ‘이타(利他)’의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성인은 보살계에 대해서 [육도의 범부 중에서 자신을 경(經)히 여기고 타인을 중(重)히 여기며 악은 자기에게 돌리고 선(善)은 타(他)에게 주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 (어서 433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괴로움과 슬픔에 동고(同苦)하여 사람들에게 받고여락(拔苦與樂) 고를 제거하고 낙을 주는 것의 실천을 해 가는 것이 보살의 실천입니다. 자타 함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승이 ‘자기 중삼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비해 보살계는 ‘사람을 위해 ‘법을 위해 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하는 경애입니다. 이 보살계의 경애의 근본은 ‘자비(慈憐)’입니다.

대성인은 [무고(無顧)의 악인(惡人)도 역시 처자를 자애하니 보살계의 일분(一分)이니라 (어서 24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일이 없는 악인조차도 처자를 자애하듯이 생명에는 본래 자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자비를 삶의 근저에 두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9. 불계

불계(佛界)는 부처가 체현한 존극의 경애입니다.

부처<불타>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주와 생명을 깨닫는 근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에서 태어난 석존과 법화경에 출현한 다보여래 그리고 삼세사방의 제불을 비롯, 법화경 이외의 경전에 설해진 수많은 부처를 들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해 범부의 몸에 부처의 경애를 나타내신 말법의 본불님입니다.

불계란 우주 전체가 무시무중에 걸쳐 자비의 활동을 계속하는 대생명체이며 자타의 생명이 그것과 일체라고 하는 생명의 진실을 깨달은 경지입니다.

또 그 깨달음을 근본으로 무상(無上)의 자비와 지혜를 체현하여 그 힘으로 일체중생을 구하고 자신과 똑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계속 투쟁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래 불계의 생명이며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도 원래 그 대생명체와 일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것에 대해 방황하는 것이 구계의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주 전체가 원래 불계의 생명이며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도 원래 그 대생명체와 일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것에 대해 방황하는 것이 구계의 중생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불계의 생명은 우리들 인에도 있습니다. 단지 현실상에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대성인은 말법의 중생이 불계의 생명을 나타낼수 있도록 그 대경(對境)으로써 본존님을 도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존님을 산수하며 자행화타에 걸쳐 창계에 힘쓸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불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치렌 상인이 [법화경을 믿는 마음이 강한 것을 이룸하여 불계라고 한대 (<육권초>)고 말씀하셨듯이 불계는 본존님을 믿고 굳세게 살아가는 강한 신심을 가졌을 때 우리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계의 생명 경애를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에도 침범 당하는 일 없는 절대적인 행복경애라고 할 것입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은 불계의 경애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경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처의 경애는 지주 사지왕(師子王)에 비유되는데 <교오전답사>에 [어떠한 곳에서 놓고 장난쳐도 탈이 없을 것이며 유행(遊行)하여 두려움이 없음을 마치 사지왕과 같으리대 (어서 1124쪽) 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심입명(安心立命) 어떠한 경우에도 태연자약하게 있는 것]의 경애라고 할 것입니다.

② 십계호구

이상의 설명은 인계에 갖추어진 십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인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경애에도 십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십계호구란 십계의 각 경애가 서로 십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옥계의 경애에 있는 중생에게도 십계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계호구라는 법리의 요지는 구계에 있는 중생의 생명에 불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 즉 구계의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나타낸 점입니다. 불계를 지니지 않은 구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계를 떠난 불계만의 부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순간순간 십계의 어떤 경애를 나타내지만 각각의 생명에는 기초(基調) 기본적 경향, 방향)가 되는 생명 경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고민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아 절망감에 사로 잡히기 쉬운 사람의 기초는 지옥계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와 용기를 갖고 철저히 이타의 실천을 하고, 부처의 경애를 향해 항상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생명 기초는 보살계라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인계의 중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기본적으로는 원래 인계가 생명의 기초로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만 인계 이외의 경애가 그 사람의 기초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불도수행으로 변혁할 수 있습니다. 성불이란 각자가 제각기 생명의 기초를 불계로 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호구란 만인이 각자의 생명 기초를 불계의 방향으로 전화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경애변학의 법리인 것입니다. 이 법리를 기본으로 니치렌 대성인은 만인이 성불할 수있도록 본존님을 도현하시어 南無妙法蓮華經의 제목을 불러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출처 LB, July, 2004)



숙명전환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믿으면 숙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을 위해 숙업이라는 불교사상에 입각한 인과이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 현재의 인을 쌓는데 그것은 좋은 인이든 나쁜 인이든 우리의 생명에 숙업으로 잠재하게 된다. 숙업이란 “행동”이라는 뜻이다. 좋은 인은 긍정적인 과로, 나쁜 인은 부정적인 과로 미래에 나타난다. 어떤 사건이든 결과든, 좋은 나쁜든, 우리가 과거세에 쌓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의 효과를 현재에 보게 되는 것이다.

“지옥의 괴로움은 순간에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주목받게 되기 때문에 ‘숙업’이라는 말은 종종 빠져나올 수 없는 괴로움 혹은 나쁜 결과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숙업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왜 숙업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타불교와 차별화하는 중요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숙업의 이론은 인과응보에 기초한 인과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과거의 부정적인 인에서 오는 모든 부정적인 숙업을 소멸함으로써 자신의 과보를 모두 다 받아야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생명은 영원하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과거의 부정적인 숙업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과를 숙취할 수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부정적인 숙업에서 생기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성불하기 위해서 즉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인을 충분히 쌓으려면 수없이 많은 생을 통해 좋은 인을 계속해서 쌓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법화경 이외의 대부분의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하기 위해 필요한 ‘억겁의 수행’이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은 이러한 숙업의 관점이 단층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대성인은 “내가 남을 경시하면 도리어 자신이 남에게 경이당하느니라, 형상단엄을 헐뜯으면 추무의 과보를 얻고... 이는 통상의 인과의 정해진 법이 아니라. 니치렌은 이 인과는 아니며, 법화경의 행자를 과거에 경이한 고로 법화경은 달과 달을 나란히 하고 별과 별이 줄을 짓고 화산을 겹치고 옥과 옥을 줄지어 놓은 듯한 경을 혹은 높이고 혹은 낮추며 조롱하였으므로 이 팔종의 대난을 만나느니라. (사도어서 960쪽)”라고 말씀하셨다.

대성인은 통상의 인과의 법과는 반대로 우리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심오한 인과의 법을 생명 오자에서 작용하는 남묘호렌계교 묘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성인은 법화경을 통통하면서 생기는 모든 박해와 고통의 원천을 자신이 과거에 법화경을 경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셨다. 묘법홍통에서 오는 어려움을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숙업을 소멸시킬 뿐 아니라 생명 오자로부터 불성을 융현하셨던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들 각자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

대성인은 나아가 부정적인 숙업의 원인이 모든 사람의 생명 속에 묘법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품의 무명이라고 명시하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묘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숙업에서 오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원품의 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옥의 괴로움은 순간에 사라지고”라고 대성인은 말씀하시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니치렌 불법을 믿으면 숙업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불성에 눈을 떴을 때 생명에 지혜와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부정적인 숙업이 빨리 소멸된다는 뜻이다.

대성인은 해가 뜨면 하늘에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고 있다. 마찬가지로 강성한 불도수행을 근본으로 신심을 깊게 함으로써 묘법의 태양이 가슴에 떠오르면 숙업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과거의 부정적인 숙업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훨씬 깊고 강성한 생명 오자의 인과를 발휘하여 우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생명을 단련하는 훌륭한 기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숙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니치렌 불법을 수지함으로써 숙업에 맞서고 전환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한 결의로 제목을 부르며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려움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숙명전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은 색이 되고 (사도어서 958쪽)” “철을 공들여 달구어 치면 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형제초 1083쪽)” 라고 말씀하셨다. 뜨거운 쇠를 두드리러 불순물을 없애야 강한 검은 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창기학회 회원들은 초창기때부터 끊임없이 광선유포를 위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유포하며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숙업을 전환해 왔다. 그 결과 모두 흔들림 없는 행복경애를 건설했던 것이다.

SGI의 활동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단련하고 어떠한 부정적인 숙업도 복운과 행복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인 것이다.

(출처: LB, Jan-Feb, 2010, Page 96)



삼장사마 (三障四魔)

니치렌 대성인은 “조수의 썰물과 밀물, 월출과 월입,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봄과의 경계에는 반드시 상위하는 일이 있으니, 범부가 부처로 되는데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드시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효에노사칸 전답서 1091 쪽)” 라고 말씀하셨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정지해 있을 때는 바람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지만,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면 앞에서 공기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바람이 세어지면서 비행기 날개의 이렛부분에 부력을 만들어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비행기가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는 한, 바람의 저항력은 계속해서 비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승력을 생성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도수행에 전력하며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려는 내외부의 반대작용에 부딪치게 된다. 불법에서는 이러한 반대작용을 삼장사마라고 부른다. 비행기의 경우 나타나는 바람의 저항력은 비행기의 속도가 증가하여 곧 이륙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삼장사마는 우리가 속명전환, 인간혁명,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천태대사는 마하지관에서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내지 따르지 말지며 두려워 말지니라. (형제초 1087 쪽)”라고 쓰고 있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 대성인은 “이 석은 니치렌 자신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문가의 명경이니 삼가 배우고 전하여 미래의 자량으로 삼을지이다. (동 어서 1087 쪽)”라고 말씀하셨다. 니치렌 대성인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마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장마를 잘 알아채고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장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를 두려워하고 미에 휘둘려서 퇴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가 행복을 향한 전진을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삼장이란 (1) 번뇌장 (2) 업장 (3) 보장을 말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번뇌장이라 함은 탐진치 등에 의하여 장애가 출래하느니라. 업장이라 함은 처자 등에 의하여 장애가 출래하느니라. 보장이라 함은 국주, 부모 등에 의하여 장애가 출래하느니라. (동 어서 1088 쪽)”라고 말씀하셨다.

불도수행을 하면서 영원한 행복 혹은 성불의 길을 추구하는데 탐진치 등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삼장 중 첫번째 장애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가족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것은 두번째, 세번째 장애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다. 사마란 우리의 불도수행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작용으로,

- (1) 신체적, 정신적 작용에서 발생하는 음마
- (2) 번뇌에 의한 번뇌마
- (3) 죽음의 고뇌, 특히 동료 회원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의심인 사마
- (4) 제육천의 마왕, 혹은 권력자에 의한 장애인 천자마를 말한다.

삼장사마는 우리의 생명경애를 떨어뜨려 행복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불도수행을 하면서도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불도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밝은 생명경애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제육천의 마왕으로, 권력자와는 반대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휘둘리게 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삼장사마 모두 제육천의 마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세계는 제육천의 마왕의 소령이며, 일체중생은 무시 이래 그 마왕의 권속이니라. (동어서, 1081 쪽)”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마왕은 권력자를 통해서도 방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마성을 간파하고 신심을 관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마의 작용과도 철저히 싸워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도수행의 길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방해작용이나 어려움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행복 즉 성불을 얻는 것은 속명전환을 위한 결의와 원품의 무명과의 끝없는 투쟁이다. 장애와 역경을 만났을 때야말로 강성하고 용기있는 결의로 불도수행에 더욱 더 전진해 가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나와도 절대로 지지 않고 모두 극복해 내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신심수행과 광선유포를 해 나가라는 대성인의 금언은, 절대적인 행복의 길에는 반드시 삼장사마가 나타나다고 가르치시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절대로 미를 겁내거나 미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삼장사마가 일어났을 때야말로 속명전환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간혁명을 위해 투쟁하며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더 헌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성인께서는 “반드시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효에노사칸 전답서 1091 쪽)”라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장마에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여 문제를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경애를 크게 열어갈 수 있다. 이케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생명경애를 크게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들

을 적당한 관점에서 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강하고 포용력 있는 생명경에서 행복이 꽃피는 것이다.

깊은 신심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으로 삼아 즐겁고 충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점차 어두운 인생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불법은 일념의 미묘함, 나아가 신심의 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My Dear Friends in America, 4-5쪽). "삼장사리를 만났을 때 현자는 기뻐한다. 현자는 역경과 장애가 성불을 위해 이룩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 (출처: LB 3-4월호 88~90쪽)



남묘호렌게교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궁금해하는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은 종종 ‘남묘호렌게교가 무슨 뜻이냐고 묻곤 합니다. 이것은 간단히 혹은 대충 대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마 니치렌 대성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최고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남묘호렌게교라고 부르는 이외의 유락(遊樂)은 없는나라.” (어서 1143 쪽) 라고 하셨으며, 또한 인생에는 자연히 기쁨과 고통, 희망과 절망들로 가득 차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존재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행복과 불행의 고리를 초월하는 “자수법라(自受法樂)”(어서 1143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생명에 깊이 내재된 지속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법화경의 제목

대성인은 어서를 통해서, 남묘호렌게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석가모니 부처의 최상의 가르침인 법화경의 제목이 바로 남묘호렌게교입니다. 법화경의 범어(고대 인도어) 제목은 사다미-분다리카경입니다. 저명한 4 세기의 고승이며 번역가인 구마라습은 법화경의 제목 문자에 담긴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범어에서 중국어로 옮겨 ‘Miao-fa-lien-hua-ching’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일본어로 바로 이 중국어 문자를 발음한 것이 남묘호렌게교입니다.

그런데 대성인에게 있어, 이 문구는 무언가 불경의 제목 이상의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대성인에게서 묘호렌게교에 나무(남으로 발음)를 추가하신 것은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무 혹은 남이란 범어의 나마스(namas)에서 온 것입니다. 이는 귀명(목숨을 바치다)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인은 ‘귀명(歸命)’에서 ‘귀(歸)라 함은 적문불변진여(迹門不變眞如)의 이(理)에 귀의(歸依) 함이다’ (어서 708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命)이란 이러한 원칙에 귀의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리와 기능을 이해하는 지혜에 기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묘호렌게교라는 절대진리 혹은 생명의 원칙이라는 묘법에 기반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최고의 가치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나무(南無)란 범어(梵語)이고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는 한어(漢語)이니이다’ (어서 708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에게서는 남묘호렌게교의 가르침이 어떤 특정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3 세기 일본의 대성인에게 있어, 한자는 동양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범어(고대 인도어)는 서양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언어가 합쳐진 남묘호렌게교의 문구는 전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러한 묘법의 범리를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인류의 행복을 위해 홍교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법화경의 예언대로 법화경의 보신(올바르게 정진하는 수행자)으로서 가혹한 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법화경을 생명에 걸고 몸으로 신봉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성인에게서는 생명의 원리인 묘호렌게교와 불어의 경애를 완전히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인에게서 말씀하신 “부처의 어의(御意)는 법화경이며, 니치렌의 혼(魂)은 바로 남묘호렌게교이니이다.”(어서 1124 쪽)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생명을 통해 법을 옹현 해내셨기 때문에, 대성인이 말세의 진정한 어본불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묘호(妙法)의 묘(妙)는 “놀라운/경이로운” 혹은 “묘한”이란 뜻입니다. 호(法)는 “법”, “원리”, “가르침”, 혹은 “현상”을 가르칩니다. 합쳐서 묘호(妙法)는 “경이로운 법” 또는 “묘법”이란 뜻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묘(妙)란 법성(法性)이고 호(法)란 무명(無明)이며 무명(無明) 법성(法性)이 일체(一體)임을 묘호(妙法)라 하느니라.”(어서 708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묘호(妙法)는 부처의 깨달음과 범부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며, 둘이 원래는 하나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불교가 부처와 범부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반면 니치렌 대성인은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가령 “생사일대사 혈맥초”에서 대성인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法華經)과 우리들 중생(衆生)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어서 1337 쪽)라고 살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또한 “묘(妙)는 사(死)요 법(法)은 생(生)을”(어서 1336 쪽)이라고 쓰셨으며, “일생성불초”에서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함을 묘(妙)라고 이름하고, 이 묘(妙)한 마음을 이름하여 법(法)이라고도 하느니라.”(어서 384 쪽)이라고 살하셨습니다. 한편 묘호(妙法)는 또한 생(生)에 표출되며 사후에 지속해서 명복되는 생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렌계(蓮華)는 말 그대로 “연화(蓮花)”를 뜻하며, 니치렌 불법(佛法)에 있어 매우 심오한 뜻을 지닙니다. 연화(蓮華)는 꽃과 열매(씨앗)를 동시에 맺기 때문에 인과구시(因果俱時)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꽃과 열매(씨앗), 즉 인(因)원인(因)과 과(果)결과(果)로써 대성인은 이를 “일체(一體)”(어서 708 쪽)라고 살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인(因)이란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수행하는 것을, 과(果)란 실제로 불성(佛性)을 득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인과구시(因果俱時)란 우리가 삶을 변혁하고자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로 그 순간, 용기, 자비, 그리고 지혜라는 부처의 생명경애가 우리들 생명속에 새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교(經)란 대성인께서 “교(經)란 일체중생의 언어(言語), 음성(音聲)을 교(經)라고 하느니라.”(어서 708 쪽)라고 기술하셨습니다. 교(經)는 문자 그대로 “가르침”이며, 여기서 가르침이란 부처의 목소리를 가르칩니다. “성불사(聲佛事)를 함을 이름하여 교(經)”(어서 708 쪽)라고 대성인은 살하셨습니다.

이는 즉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하는 우리의 소리가 나와 타인과 환경속에 불계를 융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대성인께서는 다양한 방법과 관점으로 남묘호렌게교의 각 법문과 문구 전체의 중요한 의미를 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묘법에 우리의 생명을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러한 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성장은 물론, 타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천태와 같은 이전의 승(僧) 등이 “남묘호렌게교라고 부르셨는데 자행(自行)을 위함이었지, 널리 타(他)를 위하여 설(設)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행(理行)의 제목(題目)이다. 말법(末法)에 들어와서 이제 니치렌이 부르는 비의 제목(題目)을 전대(前代)와는 달리 자행화타(自行化他)에 걸쳐 남묘호렌게교이며”(어서 1022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목(題目)을 부를 때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요?

니치렌 불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직 우리가 부딪치는 일상의 어려움에 불법을 적용하고 행동할 때만이 비로소 남묘호렌게교의 진정한 힘을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성격, 궁극,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제목과 신심에 있어 “마음(우리의 목적과 결의)만이 중요하니라”(어서 1192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와 타인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결의로,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대로 제목을 부른다면, 반드시 제목의 힘의 분명한 실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케다 SGI 회장은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의 경계를 짓는 것의 어려움을 말한 뒤, “남묘호렌게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인계합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숭고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사덕(四德)으로 충만한 고요한 생명경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묘호렌게교의 신심을 지닌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와 최고로 화려한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묘호렌게교는 생명이며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이상 걱정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성인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심과 수행의 목적은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말세 영원의 본불이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실입니다. (월드트리분 2010년 3월 5일자)

이케다 회장의 리더쉽과 함께, SGI 회원들만이 니치렌 대성인의 어유명대로 남묘호렌게교의 전세계적인 유포를 위한 광산유포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지구적 규모의 인류를 위한 모법의 공덕의 실증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



어본존(御本尊)

니치렌 대성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어서 구절을 말씀하셨다.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씻으니 믿으실지어다.”(어서전집 1124 쪽)

본존(本尊)이란 ‘근본으로서 존경한다’라는 뜻으로 신앙의 근본대상을 말한다. ‘어(御)’는 상대를 높이는 뜻이다. 남묘호렌게교가 우주 근원의 법이며, 어본존은 그것의 형상적인 표현이다. 어본존에 초점을 맞추고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함으로써, 우주의 힘을 우리속에서 활성화 시킨다.

모든 종교는 근원의 존경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주로 절대적 존재나 신이다. 여러 불교의 종파들도 전통적으로 부처와 부처의 설법을 존경해 왔다. 하지만 부처와 설법의 개념은 각 종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석가부처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중생이 불행에서 벗어나고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법멸 후에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여러 종파에서는 부처의 공덕을 받기 위해서는 석가불상이나 이미지에 기원하도록 권장했다.

니치렌은 부처와 법을 자신과 떨어진 다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성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민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모법이 아니라 추법 이니라”(어서전집 383 쪽)

인생의 명경(明鏡)

법화경에 근본을 두었던 중국의 천태대사는 성불을 위한 수행법을 설하였다. 그것은 ‘관념관법(觀念觀法)’이라는 명상과 같은 수행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의 불성을 인지하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이 수행은 뛰어난 능력과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힘든 것으로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만이 성불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 생명 속에 내재한 성불을 직접적으로 일깨울 수 있도록 남묘호렌게교의 어본존을 수지하고 제목을 부르는 수행을 설립하였다. 성불이란 우리의 정신적, 영혼적, 물리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며 또한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는 마음의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태대사의 자신의 마음을 보는 관심으로는 부분적인 성불이 가능할 뿐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우리 생명 속에 내재한 불성을 비춰주는 거울로써 사용하고 그 불성이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본존을 도현하셨다. SGI 이케다 회장은 “거울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불법의 거울은 우리 인생의 보이지 않는 또한 잡을 수도 없는 면을 비춥니다. 빛과 음영이라는 법에서 비롯된 거울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즉 우주와 생명의 법 그 자체에 기반을 둔 어본존은 부처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 자신의 생명의 진기를 비출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성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나의 미국의 벗 94 쪽)

거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화장을 하고 수염을 정돈하고 머리를 손질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본존께 창제할 때에도 불단속의 어본존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어본존이 가진 모법의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불의 지혜를 열고 서원을 세워 만인구제를 실현하고자 창제를 한다.

니치렌은 “이 어본존을 결코 타처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다만 우리들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흥중의 육단에 계시느니라”(어서전집 1244 쪽)라고 어본존의 힘을 강조하셨다.

니치렌의 승리하는 생명 상태의 표현

어린 시절부터, 니치렌은 이 세상에서 비참을 없애고 민중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한 결의를 세웠다. 이 서원을 가슴에 품고 철저히 불경을 공부하였고 석가부처의 가르침의 진수로써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하는 수행을 설립해 주셨다. 니치렌 대성인은 불법 유포의 과정에서 참수의 위협을 비롯하여 수많은 험난한 박해를 극복하였다.

니치렌 대성인은 1271년 다쓰노구치 해변에서의 침수의 박해를 극복한 후, 어본존을 도현하기 시작하였고 신심 강한 제자들에게 수여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대성인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여 사도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한 법문이 있노라.”(어사전집 1489 쪽)라고 하였다.

니치렌은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세속적인 박해에 대하여 승리하여 일어났고, 미래의 모든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생명 경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의 승리의 생명 경애를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여 남기고자 결의한다.

그는 무사인 제자 시조 강고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였다. “니치렌이 수호의 어본존을 쓰는데 있어서도 사자왕(師子王)에 못지 않다. 경에 가로되 사자분신지력이란 것이니라. 또 이 만다라를 정성껏 믿도록 하사라. 남묘호렌계교는 사자후(師子吼)와 같다. 어떠한 병인들 장애를 할 손가.”(어사전집 1124 쪽)

보탑

법화경의 11 품인 “용출품”에서는 거대한 보탑이 대지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떠오른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보탑은 중생의 잠재력의 거대한 은유로써 모든 중생의 불성의 위대함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 허공의 의식을 설명한다. 이것은 거대한 민중, 부처, 보살 모든 사방의 사람들이 모인 모암이다. 부처는 특별한 힘을 발휘하여 이 모든 대중을 공중으로 보탑 앞까지 끌어올리고 설법을 시작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문자의 형태로 허공의 의식의 근본 요소로써 어본존을 도현한다. 보탑품을 나타내는 남묘호렌계교는 어본존의 중앙에 적혀있다. 즉 부처의 총체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형식인 그림이나 조각된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의 형태로 어본존을 도현하였고 니치렌 대성인 자신의 생명으로 체득한 묘법과 일치되는 상태를 어본존에 도현하였다. 이케다 회장께서는 “그런 석상이나 이미지는 우주의 근본법 즉 모든 원인과(수행) 결과(덕)를 포함하는 남묘호렌계교를 충분히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어서의 세계 2 권 181 쪽)라고 하였다.

이케다 회장은 또한 “근행하고 창제하는 매일의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재 바로 여기에서 영원한 허공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탑을 우리 속에서 빛나게 할 수 있고 그 보탑은 우리 일상의 활동과 생활속에서 빛납니다. 그것은 어본존의 경이로움입니다. 우리 생명의 위대한 우주가 우리에게로 열리고 현실은 그 자체로 가치 창조가 됩니다.”(어서의 세계 2 권 176 쪽)라고 하였다.

신심(信心)속에 어본존(御本尊)은 존재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불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찬성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것은 쉽지 않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본존을 도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자신의 불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지 어본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신심과 수행이 바로 강력한 불성을 이끌어 내는 근본 요소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어본존도 다만 신심(信心)의 이자에 들어 있으니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것이니라. … 결코 남묘호렌계교라고만 봉창하여 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신심의 후박(厚薄)에 달려 있으며, 불법의 근본은 신(信)으로써 근원으로 하느니라.”(어사전집 1244 쪽)

포교의 깃발

니치렌 대성인은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로서 나타내 드라느니라” (어사전집 1243 쪽)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도다 조세이, 이케다 다이시쿠 SGI 초대 삼대 회장의 지휘아래 우리는 전 인류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불법의 가르침의 “포교의 깃발”로서 니치렌 대성인께서 원하신 그대로 어본존을 수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본존을 향해서 남묘호렌계교를 창제하고 삼대 회장의 정신으로 묘법을 유포하는 SGI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눈부신 성장, 공덕 승리를 인생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불법(佛法)에서의 공덕(功德)

불법(佛法)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불도수행(佛道修行)을 통해서 실제 생활이 향상되는 것을 공덕(功德)이라고 부른다.

니치렌 불법(佛法)에서의 공덕(功德)은 ‘덕’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보통 좋은 결과 또는 물질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도 수행을 통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수많은 불법(佛法) 경문에서는, 불법(佛法)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행했을 때 얻는 공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법화경 제16 품인 ‘여래수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우리 안에 내재한 영원하고 우주대의 크나큰 부처의 생명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분별공덕품’, ‘수희공덕품’, ‘법사공덕품’을 설하였다.

현익(現益)과 명익(冥益)

니치렌 불법(佛法)의 수행으로 얻는 불법(佛法)의 공덕에는 현익(現益)과 명익(冥益) 두가지가 있다.

현익(現益)은 겉으로 나타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덕을 말한다. 재물을 얻는 것에서부터 병이 낫거나 좋은 직업을 얻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명익(冥益)은 꾸준한 불도수행을 통해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없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니치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묘호렌게교라고 마음에 믿으면 마음을 집요하여 석가불이 회심되시느니라. 처음엔 잘 모르지만 점점 달이 거듭하면 마음의 부처가 꿈에 보여서 즐거운 마음 잠차로 나올 것이외다.” (마쓰노전부인답서, 1395 쪽)

어린 묘목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는지 매일 관찰한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 묘목이 매일매일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5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 수행을 5년, 10년 또는 20년을 꾸준히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이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내적 변혁의 과정을 인간혁명이라 부른다.

또한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말법시대의 사람들에게 불법수행의 공덕은 명익(冥益)이라 했다.(교행증어서, 1277 쪽).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묘호렌게교라고 처음으로 봉창할 때 깨닫는 우리 안에 내재한 불성(佛性)의 씨의 신심과 불도 수행을 통해서 계속 육성되는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불씨는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불계의 공덕의 과실을 즐길 수 있다.

변독위약(便毒爲藥)

대승불교의 2대 또는 3대 학자인 용수(龍樹)는 법화경의 힘을, “대부자가 능히 독을 가지고 약이 되게 함과 같음” (법화경제목초, 944 쪽) 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묘락 대사의 석에 가로되 “고치가 어려움을 능히 고치기 때문에 묘라고 칭함” (법화경제목초, 944 쪽). 이 인용구들은 절망을 끊임없이 샘솟는 희망으로, 고통을 즐거움과 충만감, 그리고 불행을 복은 가득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묘법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위의 용수(龍樹)의 석(釋)을 인용하시며,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독(毒)이라고 함은 무엇이고, 우리들의 번뇌(煩惱), 업(業), 고(苦)의 삼도(三道)이니라. 약(藥)이란 무엇이고,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이니라. 능히 독(毒)으로써 약(藥)으로 한다 함은 무엇이고, 삼도(三道)를 바꾸어 삼덕(三德)으로 함이라. ... 즉신성불(卽身成佛)이라 함은 이것이니라.” (어서 984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니치렌 대성인은 번뇌(煩惱), 업(業), 고(苦)의 연속인 불운의 삶을 독(毒)에 비유했다. ‘번뇌(煩惱)’는 망상, 뭔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탐욕, 화, 어리석음, 만심과 의심 따위의 부정적인 욕망 등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업(業)’이란 번뇌에 의해 쌓아온 과거의 나쁜 행위, 사고, 언행으로 인해 쌓여진 부정적인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 잠재력은 우리의 삶에 내재해 우리의 인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苦)’는 번뇌와 업에 의해 우리가 겪는 비참함을 의미한다.

고통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고(苦)’를 없애려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행위는 부정적인 인(因)을 쌓아서 부정적인 업(業)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삶의 고통이 심할수록 욕망과 망상이 더욱 강해져서 고통의 연속이 된다.

우리가 남묘호렌게교라 봉창하면 명익(冥益)이 독(毒)을 약으로 바꾸듯이 욕망과 고통을 행복의 인(因)으로 만들 수 있다. 삼도(三道)로 물들인 고통스러운 삶은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이라는 불계의 생명에 갖추진 삼덕(三德)을 즐길 수 있다. 삼덕(三德)은 행복 가득한 삶을 이루게 해주는 ‘약(藥)’인 것이다.

법신(法身)은 부처가 깨달은 절대 진리를 의미한다. 반야(般若)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해탈(解脫)은 망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명경애를 의미한다.

육근청정(六根淸淨)

니치렌 대성인은 또한 육근(六根)이 청정해 지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 하셨다. 법사공덕품에서 니치렌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공덕이란 육근청정의 과보(果報)이니라. 결국 지금 니치렌등의 동류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자는 육근청정(六根淸淨)이니라. 그러므로 남묘호렌게교의 법의 스승으로 되어, 큰 덕이 있느니라.” (어서 p.762)

육근이란 눈(안근(眼根)), 귀(이근(耳根)), 코(비근(鼻根)), 혀(설근(舌根)), 몸(신근(身根)), 그리고 마음(의근(意根))을 의미한다. 눈, 귀, 코, 혀, 몸은 5 감각 기관을 의미하고, 마지막 인 ‘마음’은 5 감각과의 교류를 통해 반응하는 정신적인 작용을 의미한다.

육근청정이란 묘법 수행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력, 식별력, 판단력이 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우

리는 행복 가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악을 떨하고 선을 취하는것

공덕(功德)이라는 한자는 악을 떨(功)하고 선을 취한다(德)고 번역할 수 있다.

불법에서는 선과 악은 우리 생명 안에 잠재한다고 인식한다. 또한 악의 근원은 무지에서 온다고 본다. 무지란 내 생명 자체가 묘법이고, 우주 만대의 근본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 생명에 갖춰진 나와 타인의 불성(佛性)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를 ‘원품의 무명(無明)’이라 하고, 이것이 번뇌 그리고 탐, 진, 치와 같은 삼독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무명(無明)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원품의 무명(無明)은 인식하고, 식별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원품의 무명(無明)은 모든 생명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희망의 경전 ‘어서(御書)’에서 배운다 (영문판), 173 쪽)

결과적으로 ‘악도 결국은 무지의 한 작용이기 때문에, 불지혜로써 물리칠 수 있다. ‘악을 떨한다는 것은 원품의 무명, 또는 원래 생명에 갖춰진 부정적인 면을 극복할수 있는 불지혜를 열어서, 무명에 의해 초래되는 고통이나 불행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케다 회장께서는 계속 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부처다. 이 최고의 지혜를 여는 길은 석존의 법화경과 남묘호렌게교의 가르침인 불법(佛法)에 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불지혜를 끌어 냄으로써, 범부인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 위치에서 그대로, 원품의 무명(無明)을 이길 수 있다.” (희망의 경전 ‘어서(御書)’에서 배운다 (영문판), 173 쪽)

우리 생명 안에 내재한 불성에 대한 강한 신심으로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함으로써 우리는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듯이 무명을 타파할 수 있다.

인간다운 행동이 가장 큰 공덕

나치렌 대성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교주 석존의 출세의 본회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스승천황어서, 1174 쪽)

불법(佛法)의 가장 큰 공덕은 우리의 행동에 있다. 우리의 인격과 행동이 불법(佛法)에서 추구하는 행동과 덕에 일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인간다운 행동은 타인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자극하고, 결국 그런 행동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다. ■(출처: LB, May-Jun, 2010, 81p)